

광주 2030년까지 공원·녹지 151곳 늘린다

일몰제 따라 축소 면적 중장기적으로 확대 계획

일부선 보상비 등 투자 예산 크게 부족 문제 제기

광주시에 오는 2030년까지 공원 146개소와 녹지 5개소 등 모두 151개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30년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해 최근 발표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 면적 축소가 불가피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공원 면적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을 통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을 도시기본계획 제시인 12㎡보다 넓은 14.30㎡로 늘릴 계획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지역 내 공원은 606개소(1970만 8000㎡), 녹지는 95개소(397만3000㎡)로, 15년 동안 각각 146개소(460만2000㎡), 5개소(12만6000㎡)를 조성해 2030년에는 공원 752개소(2431만㎡), 녹지 100개소(409만9000㎡)를 유지할 계획이다.

2030년 계획인구는 170만명, 계획구역은 광주시 행정구역인 501.18㎢로 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30년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28.41㎡, 1인당 공원면적은 14.30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3.68㎡, 13.39㎡이다.

이와 함께 도시녹화계획도 수립해 정원 문화도시 581개소, 중점녹화지구 7개소 등도 만들 예정이다. 이 안에는 제3시립묘지인 분량묘지공원(236만㎡), 무등산생태공원, 벽진동·마록동 탄약고 부지와 호수생태원 등 132만㎡도 포함됐다.

또 광주시 지정 보호수가 있는 77곳을 모두 소공원으로 지정해 공원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공원·녹지에 투자할 예산

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2030년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할 경우,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포함해 1조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조성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 계획은 광주시가 향후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공원 개발 계획을 단계별로 추가하게 된다"면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큰 측면은 있지만 쾌적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첫 해외사무소

중 상하이사무소 개소

광주시의 첫 해외 사무소인 중국 상하이 사무소(소장 권현준)가 지난 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상하이사무소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시장 개척과 통상 지원, 투자유치, 협력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맞은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상하이 소재 기업, 자매도시 장쑤시, 총영사관, KOTRA, 한인회 관계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광주와 자매도시인 장쑤시 루팡팡 시장과 세계 굴지의 배터리 제조 기업인 중국 초이그룹 양신신 총재가 상하이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하이사무소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환벽당 정자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에 전시 전용공간과 비즈니스 상담실, 사무실을 갖췄다.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K시리즈, 소렌토 등 다이스터카와 광주지역 문화산업체의 캐릭터 상품, 치과의료기기 등을 전시하는 등 광주지역 기업의 제품 전시와 상담 장소 제공, 상담기업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하이사무소에 제품과 홍보자료 전시를 원하는 기업 또는 협회는 시 투자유치과에 문의하면 된다.

사무소 연락처는 021-32030266, 0267(중국) 070-86663397(한국)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중 상하이사무소 테이프 커팅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가운데)이 지난 1일 오전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자른 뒤 내부시설을 관람했다. 상하이사무소는 광주시의 첫 해외 사무소로, 앞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시장 개척과 통상 지원, 투자유치, 협력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승인 고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 제한지역 지정

광주시는 3일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광주시 고시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위치는 광주시 남구 대지동, 지석동, 석정동, 압촌동, 철석동 일원으로 면적은 94만3508㎡다.

에너지밸리 산단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변환장치(HVDC), 전력저장장치(ESS) 등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연계된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분야의 집적화된 산업생태계 구축, 인접한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와 연계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주도 시공사로, 오는 2021년 완공된다. 전체 94만3508㎡ 가운데 공공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가 각각 39만9075㎡(42.4%), 34만6545㎡(36.7%) 등이며, 주거용지(10만6566㎡), 복합용지(4만6543㎡), 상업용지(2만874㎡), 지원시설용지(2만768㎡) 등도 들어서 하나의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도서는 광주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에 비치했으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이 지역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광주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51만1523㎡(첨단3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착공신고 등이 모두 제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억제해 시민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 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친환경차산업 본격 실행

13개 사업 1291억 투입

광주시에 내년부터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본격 실행한다.

광주시는 3일 "내년도 자동차산업에 13개 사업에 국비 588억원, 시비 583억원 등 총 1291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년도 726억원 예산을 투입해 19개 기업 기술개발과제 지원과 42종의 기업 공용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또 빛그린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지난달 9일 국토부에서 승인돼 자동차

밸리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미래형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사업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커넥티드 서비스 카산업 육성을 위한 고신뢰성 전장부품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위치한 LG이노텍 등 전장부품 전문기업을 뒷받침할 링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 밖에 지역주도형 부품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발굴한 '전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사업' 등 총 35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경제부시장·감사위원장 공모 나서

광주시에 최근 경제부시장, 감사위원장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에 나섰다. 김종식 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경우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연임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부시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3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직급으로, 임기는 모두 2년에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한 후 27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각각 2018년 1월 3일과 1월 4일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윤 시장이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전략산업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국비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협력추진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정부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광산구(울)지역위원회 혁신대의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울)지역위원회(위원장 박인화)가 지난 2일 혁신대의원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수원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의원대회는 370여명의 당원을 비롯해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과 이웅섭 대통령직속울지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4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선 지역위원회 혁신TFT가 수개월 동안 마련한 당 혁신안이 발

표대 관심을 끌었다. 혁신안에는 당원자치회 구성,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및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개최, 타 정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정치개혁연대의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박인화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선승리에 위해 있으면 박근혜 정부를 태운 촛불민심이 우리 민주당 정부로 순식간에 옮겨 붙을 것"이라며 "마을 곳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호남 및 제주권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취업지원컨설팅
프로그램

함께 취업을 준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1:1 상담으로 맞춤형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1:1**

대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으로 이공계열 기업 취업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 내용 (100% 정부지원)

-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 취업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과학지도사, 식품생물산업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 4차 산업 혁명 대비 미래 새로운 과학기술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단 Tel. (062) 530-0497-8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